

## 한국 게이 가수 뮤비, 백만 명이 조회 하다나…

### 한국 순교자의소리 CEO 에릭 폴리 목사 “한국교회 즉각 반응을”

한국 최초 커밍아웃 게이 가수인 홀랜드의 데뷔 뮤직비디오가 출시된 시 첫날, 조회 수 100만 뷰를 돌파했다. 이 뮤직비디오에는 남성들이 키스하는 장면이 포함되었으며 현재 조회 수 6백만 뷰가 넘는 다.

한국 순교자의소리 CEO인 에릭 폴리 목사는 한국교회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며, 그 방법은 법정 투쟁이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아니라고 말한다. 폴리 목사는 주장하길, 성직 죄악에 대항하는 교회의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모든 기독교인 가정이 온전한 성경적 결혼생활의 살아있는 표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거나 법률을 제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홀랜드의 뮤직비디오가 이처럼 빠르게 성공을 거둔 것을 보면 이러한 전략들이 효과가 없고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홀랜드의 뮤직비디오가 보여주는 바와는 다르게, 사랑하는 사람과의관계와 결혼생활의 목적이 행복이나 자기 충족이 아닌 순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죽고 우리의 배우자와 가족을 그리스도의 사랑, 즉 고난을 감수하는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홀랜드의 뮤직비디오가 보여주는 바와는 다르게, 사랑하는 사람과의관계와 결혼생활의 목적이 행복이나 자기 충족이 아닌 순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죽고 우리의 배우자와 가족을 그리스도의 사랑, 즉 고난을 감수하는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폴리 목사는 작년에 한 훈련세미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 같은 법적 사건들보다 홀랜드의 비디오와 같은방법이 동성애와 성 혁명으로 하여금 한국을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주된 수단이 될 것이라 예측하며 강연을 했다.

“새로운 헤이스타일이나 옷차림이 한국의 한 드라마에 나오면, 다음 날 바로 그것이 한국의 거리를 채웁니다. 한국 드라마에 동성애자가 영웅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처음으로 방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폴리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성 혁명에 대항하기 위하여 정부나 법률 체제에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폴리 목사는 이같이 말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은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란 홀랜드가 그의 뮤직비디오 ‘내버랜드’에서 노래하는 종류의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증이라는 사실을 한국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배우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위협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는,

결혼의 정의를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개인적으로법적인 연합을 이행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희석한 점을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는 한국 교회가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모든 기독교인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

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항의 시위를 해도, 법적인 청원 운동을 벌여도, 한국 아이들에게 결혼이란 자기 충족을 위한것이 아닌 순교라는 점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백만 명이 넘는 한국 아이들이 홀랜드의 비디오를 한두 번 정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아이들은 매일 자신의 부모를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들에게 진정한 기독교적 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끈기 있고 지속적인 인내, 매일 섬시는 사랑, 서로를 위한 희생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자녀들은 그러면 동성애에 영성보다 이런 삶에 매력을 느끼고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한편 폴리 목사는 온전한 기독교적 결혼생활을 통해 교회가 동성애와 성 혁명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무료 훈련 자료들을 집필 및 제작하였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의 무료 훈련 세미나인 ‘지하교회를 준비하라’는 온라인상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 독자들은 총 3권으로 이루어진 폴리 목사의 지하교회 시리즈를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 시리즈는 반(反)동성애가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성 혁명에반응하는 교회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홍은혜 기자

## “풀러 코리안센터, 이론·실천·균형 갖출 것”

### [인터뷰] 개원식 앞두고 초대원장 김창환 박사

풀러신학교가 오는 2월 26일 코리안센터 개원식을 개최한다. 한국어 목회학과와 선교학과를 통합해 코리안센터를 출범시키기로 결단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풀러신학교 코리안센터 김창환 원장

으로 인한 진통을 다소 겪었던 풀러신학교가, 이번 개원식을 계기로 상처를 봉합하고 위기를 넘어 비상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풀러신학교가 30년 수 많은 한국인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온 만큼,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이에 본지는 풀러신학교 코리안센터 원장인 김창환 박사를 만나 이 센터의 취지와 비전, 목표 등에 대해 들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출신인 김 원장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M. Div.)와 신학석사(Th. M.)를 거쳐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철학박사(Ph. D.) 학위를 취득했다. 또 영국의 요크세인트존 대학교 신학과 공공 영역 석좌교수로도 12년간 재직했다.

Q. 먼저 코리안센터에 대해 소개해 달라.

A. 풀러신학교는 1947년 개교한 이후 세계 복음주의의 학문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어 프로그램은 1990년대 초에 목회학과 선교학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현재까지 1,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최근 설립된 코리안센터는 그 두 학과를 연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자원을 지원하는 사역을 맡으며 연구와 출판을 통해서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리안센터는 풀러신학교 내의 다른 여

러 센터, 한국 및 세계 각지에 있는 복음주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격변하는 시대에 맞는 신학과 선교학을 연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리안센터에는 현재 D.Min., D.Min. GM., M.A., Th.M., D.Miss. 등 5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추진하는 전략적인 방향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둘째는 한인 학생들과 졸업생에 대한 교제와 네트워킹 강화, 셋째는 한국신학과 선교학에 대한 연구와 출판 증진, 넷째는 한국교회와 미국 등에 있는 한인교회와 지역사회에 기여 등이 다.

Q. 두 학과를 코리안센터로 통합한 이유는 무엇인가.

A. 두 학과를 따로 운영할 경우 장점도 있었지만 효율성 면에서 단점이 있었고, 특히 행정과 운영 등에서 중복투자가 발생해 왔다. 그래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을 결정하게 됐고, 기존 두 학과의 장점을 잘 살리고 공유해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한다.

Q. 코리안센터 출범 이후 중점으로 들

사안은.

A. 1년 정도는 통합을 완성하는 데에 치중하려 한다. 두 학과가 기존에 학문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잘 계승하면서 함께해 나갈 프로그램들을 연구할 것이다.

현재의 프로그램들도 비판적 검토를 거쳐 차별화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목회학 및 선교학 등을 연구해 출판 및 상담 등을 하려 한다. 한인교회들과 연계하고 그들이 가진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풀러에는 이미 목회와 선교 사역을 하시던 분들 중 좀 더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 그분들이 이론과 실천의 균형을 갖추고 보다 깊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

풀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음주의라고 보는데, 근본주의도 자유주의도 아닌 ‘말씀 위에 바로 선’ 신학으로 복음주의를 지켜나갈 것이고, 민감한 이슈들도 피하기보다 직시하려 한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인종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1년에 한 번 컨퍼런스를 열 것이다.

Q. 최근 신학교의 현실을 진단해 주신다면.

A. 한국도 미국도 여러 모로 신학대학들이 도전받고 있고 위기감이 있다. 교세가 축소되면서 신학생 숫자가 줄고 위축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모두에게 숙제다. 풀러는 학생 수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편인데,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직시하고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먼저 온라인 과정을 활성화하면서도 멘토링을 강화하고, 풀러 스튜디노나 풀러 팀을 통해 단지 목회자를 양성하는 차원을 넘어 교인들과 사회에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또 리더십 플랫폼을 갖춰 평신도 리더십을 양성하고 계속 교육을 하려 한다.

Q. 말씀하셨듯이 교회의 위기가 신학교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신학교가 바로 서면 교회 위기를 극복할 열쇠가 될 수 있지 않겠나.

A. 교회가 정말 투명해야 하고, 배타적 종교단체로 머무는 게 아니라 선지자적으로 사회를 섬기고, 사회의 비평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공공성을 이뤄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신학교 자체가 자성해야 한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의를 일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한국교회의 상황 보면 그런 공공성이 너무 결여돼 있고 교회를 너무 사유화하지 않았나 한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괴리감도 크다.

그런 점에서 교회와 신학교가 다같이 힘을 쓰고, 공공적인 윤리에 대해 도전하고, 우리 자신이 서로 비평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신학교의 한국인 교수들과 스태프들도 계속 모여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를 섬길 것이

가를 논의하고 있다.

Q. 사회적·신학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A. 동성애 문제는 아주 민감한데, 복음주의의 풀러가 갖고 있는 원칙적 입장은 복음주의다. 성경적 원칙에 따라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하되,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고 돌봐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성연애자들이 우리 학교 학생이나 교수가 되기는 어렵다.

이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려 있다. 열려있다는 것은 이슬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기독교가 상당히 배우고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이슬람권에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이슬람을 믿는 일반인들에 대해 구분해야 한다. 근본주의를 경계하고 비판하되, 일반인들에게는 선교적 접근을 해야 한다.

Q. 풀러신학교는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아 왔는데,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 세속화와 교인 급감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많은 원인 분석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의 공공성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지 못했다고 본다. 한국인들과 한인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훌륭하다. 이는 매우 자랑스럽고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그것이 배타적·근본주의적인 입장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말씀을 계속 나누고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풀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코리안센터가 많은 도전과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미국 풀러신학교 코리안 센터는 현지시간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공식 개원한다. 풀러는 그동안 신학대학원 내에 한국어 목회학 박사 과정, 선교대학원 내에 한국학부를 운영해 왔는데, 이 두 종류의 한국어 과정이 이제 코리안 센터 안에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LA=길버트 유 기자



### “부탁합니다”

기독교세진회 직전 백현기 이사장(왼쪽)이 신임 정지건 이사장에게 취임패를 건네고 있다. 이나래 기자

## 기독교세진회,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드려

제14대 기독교세진회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18일 오후 상도교회(담임 최승일 목사)에서 열린 가운데, 백현기 제13대 이사장이 이임하고 정지건 이사장이 새로 취임했다.

직전 백현기 이사장은 “판사로서 감옥에 보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세진회 이사장 직에 임했다”며 이임 소감을 밝혔다.

정지건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세진회가) 강한 자를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지난 50년 동안 제조자들을 품고 달려왔다”며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했다. 그는 “강한 자를 위로하고 섬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이나래 기자

최승일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는 강신원 목사(제11대 이사장)가 “누가 영생에 들어갈 의인인가?”(마25:31-46)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사)기독교세진회는 1968년 설립되어 수용자 교회와 수용자 가족들을 보살피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와 회복을 돕는 법무부 1호 인가 교정선교복지 전문기관이다.

세진회의 활동으로는 교정복지사업, 소년원지원사업, 수용자가족돌봄사업, 수용자 자녀 멘토링사업 등 수용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자녀)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컨텐츠 사업을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 “설날 연휴, 작은 교회 방문·봉사하고 친교를”

## 행동하는 신학자들의 모임인 살롬나비, 2018년 설날 논평

설날은 우리 민족의 세시(歲時)풍속 가운데 한가위와 더불어 가장 큰 명절이다. 설날에는 조상에 제 차례(茶禮)를 지내고, 친척이나 이웃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이 고유의 풍습이다. 명절을 지키는 세시풍속은 우리 삶의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데 리듬을 주고 재충전하는 좋은 시간이다. 멀리 떨어져 있던 부모 친척들이 만나고 집안 곳곳을 청소하며 아들 딸 손자손녀들이 만나는 시간이다. 살롬나비는 민족 최대 명절의 의미를 다음 같이 천명한다.



김영호 목사(기독교학술원장·살롬나비 상임대표·송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창립원장)

1. 오늘날 최대의 번영을 주셔서 ‘30·50클럽’에 들게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올해 한국은 지구촌의 선진국인 국민소득 3만불 인구 5천만의 그룹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지난 60년전 지구상의 가장 빈국이었던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오늘날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고 1988년 하계 서울올림픽에 이어 2018년 동계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일반은총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설날은 대한민국이 동계 평창올림픽을 개최하고 세계 시민들을 초청하여 동계 스포츠 행사를 하는 지구촌 인류의 평화와 화합 축제를 거행하는 기간(2월 9일~25일)이다. 핵 확산 금지조와 위반하여 핵무기 ICBM 개발 최종단계에 도달하여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도 참가하는 민족화합 축제이기도 하다. 신자들은 설날 가족예배 시에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겠다.

2. 설날은 우리 겨레에게 가족, 이웃, 민족의 공동체 됨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설날은 음력으로 새해의 첫 날을 가리키는 명절이다. 원일(元日), 원단(元旦), 세수(歲首), 연수(年首), 단월(端月)이라고도 한다. 이 날을 통해 각지 생활하는 자라는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뵙고 문안드리며 못 다한 효를 행하고 바쁜 일상으로 함께 하지 못했던 형제자매가 오랜만에 함께 모여 회포(懷抱)를 풀며 이웃과 놀이문화도 함께하며 공동체의 정을 확인하는 화합의 날이다. 이 날들을 통하여 우리는 같은 민족 공동체라는 일체감을 가지게 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다. 이번 설날은 이러한 공동체 의식에 바탕한 사랑으로 대화와 소통의 장이 이루어져 하나됨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 개인주의 아닌 가족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명절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를 형성하여 ‘우리 의식’의 아름다운 전통을 형성하여 왔다. 어른에 대한 공경, 가족 간의 화합과 협동, 온 동네의 잔치 분위기 등은 우리 민족의 높은 물질성 회복을 위한 신앙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런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두레나 품앗이 제도도 생겨 마을마다 화합의 장을 이루는 독특한 정신문화를 형성했다. 서양 문화가 나와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개인주의를 발전시켰다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희생을 전제로 ‘우리 의식’을 발전시켰다. 극단의 개인주의화로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사회가 파편화되어 가는 시대상황에서 이러한 가족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필요하다.

4. 명절 휴일 기간이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민족 최대명절인 이번 설날은 이러한 대화와 소통의 현상이 되기를 바란다. 후 산업시대 각자가 맡은 전문적 일로 생업에 바쁜 가족들과 친척들이 명절 휴일 기간을 통하여 다시 만나는 시간은 값어치 있는 대화와 사랑과 화해의 소통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각종 모임에서 우리 민족 저변에 깔려 있는 민족 정서인 나라를 위한 단결과 협동과 이웃 사랑으로 사회갈등을 잘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4. 설날을 기해 탈북민들을 초대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들이 잘 정착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3대에 걸친 독재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한 겨레를 생각해야 한다. 북쪽의 겨레들은 혈연은 우리와 같을지라도 언어, 사회적 문화의식, 삶의 조건 등에 있어서 우리와 상당히 다른 상황 속에서 이미 73년을 넘어서고 있다. 가족들이 만나는 설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실향민의 아픔을 느끼는 겨레들이 있다. 이러한 슬픔과 아쉬움을 달래기 위하여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에 대한 동포애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민족 공동체성을 이번 설날에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특별히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탈북자들을 위한 환영과 대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이 교회를 동경하고, 위로받고, 남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중요 과제이다.

5.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 다문화 가정들을 포용해야 한다.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어 지금, 다문화가족을 포용하는 설 명절이 되어야 한다. 설 명절은 다문화 가정들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과 행사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 안에는 언어와 혈연과 종족이 다른 이주민 상당수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주민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



용하고 이들이 가진 문화적 다름을 우리의 재산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폐쇄성을 떨쳐 버리고 상호 소속감과 상호 협력과 상호 나눔과 상호 섬김을 활성화하자. 서로 다름과 차이는 다양성으로서 서로 보완과 사귀의 조건이 될 수 있다. 결코 차별이나 배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름의 인정을 공존 조건으로 수용하자.

6. 교회는 하나됨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여 지역사회 화합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남다른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세계 교회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큰 자랑이요 자산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하나 됨과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이지 못

하여 사회로부터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게 되었다. 교회는 계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설날을 계기로 교회의 초동부, 청소년들과 장년부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서 설음식과 선물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들에게 전하여야 할 것이다. 방문과 만남은 지속적이며 정례화되어야 한다.

7. 교회는 정의로운 인간 관계를 강조 실천하여 메마른 세상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사회 화합의 역할을 해야 한다. 화합이란 소외와 따돌림이 없는 정의로운 인간관계에서 생긴다. “오직 정의를 몰갈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이다”(암 5:24)의 정의로운 삶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사회 화합을 위한 교회의 책무는 정부와

사회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이다’는 문구가 교회 안에서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들려와야 할 것이다.

8. 설 연휴 기간을 고향교회와 지역교회를 방문하고 봉사하고 살리는 계기를 만들자.

이번 설날을 계기로 ‘우리의 공동체가 개인과 사회와 정치 전반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공동체 의식으로서 ‘우리 한국인’ 우리 이웃 등이 회복되길 바란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태어난 고향교회를 방문하거나 지역연고의 작은 교회를 방문하여 봉사하고 이들과 교제하고 이러한 고향과 지역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전하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 My KIDS

##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2. 모바일 앱 mykids.wv.or.kr로 접속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설치하세요.**

1. 월드비전 Family Care와 함께 하용 링크가 담긴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카드를 전지출 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3. 전 1회 다운로드할 때 보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통한 혜택**

1. 월 30원의 후원금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의 영양 보전, 학습, 의료 및 교육에 혜택을 줍니다.
2. 후원금으로 한 아이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희망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http://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 고난의 계절(마 4:1-11)



푸른교회 조성노 목사

(제 41-11, 개정)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계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아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임의로만 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기록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아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내게 열드레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매년 사순절 첫째주일에는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는 게 개신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부활절 전 고난기간이 왜 굳이 40일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40일간의 광야고행 그 기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째주일에는 늘 주님의 40일간의 금식기도와 마구에게 당한 시험의 의미를 되새기는 게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동양권에서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당한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세 번씩입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유혹

을 받으셨다는 것은 어쨌든 마음이 흔들  
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문이 바로 거  
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같은 분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공자님은 논어에서 불혹(不惑)  
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혹을 받지 않는  
사이인제 40세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주님은 아직 40이 아니어서 수  
양이 부족해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공자  
님께 따르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  
다. 성경은 어디에도 불혹은 없습니다. 사  
람은 누구나 죽는 순간까지 유혹에 시  
달립니다. 과제가 크면 클수록 그 유혹  
도 그만큼 큼니다. 주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갱  
신자를 앞두고도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겹  
세마나에서 주님이 처절하게 기도하며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십니  
다. 주님이 심자기를 피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 것입니다. 당시 주님이 당한 유혹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겪고 당하는 가장 보편적인 유혹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당하면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시험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첫 시험은 돌을 떨어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임과도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배고파고 목마서 분어셨습니다. 그러나 분이 광아써서 40일 금식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필요 없는 한계상황입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마귀는 주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당연히 딸으로 유혹합니다. 안 돼요. 광아에 떨어 돌맹이가 떠오로 보이는데 그 돌을 떨어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마귀의 말을 조심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주님은 돌이 떨어 되게 해서 주님 배도 채우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임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떠은 가장 절실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님 배로 보아도 딸로 떠을 만들어 주님 배도 채우고, 딸로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4절에서 정답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귀는 떡 제일주의, 물질지상주의, 맘몬

어머를 강요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을 내세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때로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이면 다 된다고 합  
니다. 때면 있으면 누구나 죄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은 팔족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버린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팔족 한 그  
릇에서 양심도 신앙도 하나님도 팔아 버린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떠난  
있으면 된다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  
다. 왜 그렇까요? 사람은 떠난 필요한 육  
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어떻게습니까? 모두 떡  
에만 미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로  
떡을 만듭니까? 그럼에도 보십시오. 우  
사회의 온갖 불법, 편법, 투기, 뇌물, 비자  
각 등은 모두 돌로 떡을 만들자는 반칙  
이요 억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먹을 것을  
잔뜩 쌓아 놓고도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40일을 굶으시고도 떡으로만 이라는 마  
귀의 유혹을 칼처럼 물리쳐십니다. 우리  
는 주님의 말씀을 평생 배에 새기고 살  
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 일입니다. 5절 이하입니다. “[5] 이 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도 그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 들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정신적인 시험, 명예심, 허영심, 영웅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얼마나 교활한 시험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 공생애를 앞두고 계십니다. 만일 성전 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사람들의 인기를 함몰에 받을 수 있는 대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번 역지도 그 절호의 기회를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불경한 일입니다. 뛰어내려서 죽으



두치오 디 부오닌세나(Duccio di Buoninsegna, 1255-1319), 광야에서 유혹 받으시는 예수(The Temptation of Christ on the Mountain, 1308-1311), 나무에 템페라, 미국 뉴욕, 프리크 컬렉션(New York, Frick Collection)

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살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표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신 것입니다.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임을 증명하겠다고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네 믿음이 좋다고 하시며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의 장난이나 영웅심, 허세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면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파트 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면 배이던 백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평심 따위를 챙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주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이 당장 내려왔을 법도 한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자 죄입니다. 누가 자꾸만 나를 사랑하냐며 시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만 그 사랑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단 칼에 물리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치명적인 시험입니다. 8절 이하입니다. “ [8] 마귀가 또 그를 데

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  
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내  
게 없으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것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물  
질적 시험이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  
라는 정신적 시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영적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고도를 보십시오. 땅에서 성전 꼭대기, 저  
높은 산입니다.

이것은 유혹의 강도와 정도를 뜻합니다. 마지막 시험도 눈앞에 펼쳐진 모든 영화와 부귀가 한 번에 내 것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얼마나 식은 죽 먹기 시험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절 한 번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겨야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딱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세우셨는데, 마지막 시험에서도 하나님  
 만을 내세우십니다. 우리가 특하면 왜 마  
 귀의 시험에 넘어갈까요? 하나님만 이라  
 는 절제에 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하나님만 이라는 절대를 놓치지  
 맙시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무  
 너집니다.

마귀의 유혹에는 백신이나 면역이 없습니다. 그 유혹은 날마다 순간마다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처럼  
우리도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디 갈수록 더 교화해지는 마귀의 물질  
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유혹을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이라는 절대  
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http://www.christiandaily.co.kr)

<p>사장 발행인 <b>김영수</b></p> <p>일반편집국장 <b>장세규</b></p> <p>교계편집국장 <b>김규진</b></p>	<p>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p> <p>대표메일 corp@c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p> <p>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2          우리은행 1005-301-884992</p>
<p>미주 기독교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p> <p>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p>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 똑똑한 금융

##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 우체국 예금





#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 (출 29:25-45)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밧아야 하는 몇 가지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히8:1)



이선규 목사(대림대학교총장)  
화센터 대표·대림종교교포교회 담임

제사장의 4명의 아들은 구원 받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는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이 존재했지만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이제 율법에 의한 제사장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히7:22)

비록 대제사장의 실체는 예수그리스도이었으나 예수님은 율법과는 상관없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은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지 못하므로 죄의 변화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속죄의 완성이 불변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구원도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부름 받아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엡 4:1-2)

1. 손, 발을 씻는 의식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전에서 일하기 전에 먼저 성막 앞에서 목욕을 하였는데 이 의식은 제사장으로 임명 받을 때 오직 한번만 행해졌으나

손발을 씻는 의식은 물두멍에서 항상 하도록 하였습니다. (출30:17-21) 유월절 만찬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과정에서 베드로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요13:10)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의미하고 ‘발’을 씻는 의식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생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하게 하시고” (엡 5:26)

“너희는 내가 일러 주는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안에 거하라 (요15:3-4) 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씻은 것입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으로 가능 합니다.

이 절차 속에 배어있는 성결과 거룩함은 쾌락과 음란과 사치가 황폐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커다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 거룩한 옷을 입을 자.  
율법에 따른 제사장들은 먼저 깨끗하게 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전에 제사장 먼저 거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생활을 요구 하십니다.

몸을 깨끗이 씻은 제사장에게 이제 옷을 입힙니다. 보석이 달린 흉배를 달고 예포에 띠를 띠우고 머리 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쓰인 성패를 달아줍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아론과 그 아들 들은 이제 근사한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중대한 직책을 맡기는 취임식이니 만큼 경건함과 거룩함이 질게 갈려 있음은 당연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찾아오는 자를 양자로 삼으시고 이처럼 화려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기름부음이 행하여집니다.

이 기름 부음은 특별히 성별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교인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말세 지말을 당한 세대가 되어서 음란하고 음탕하고 죄악으로 부패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벧후 3:10)

“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엡 5:26)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안에 거하라 (요15:3)”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은 기름 부음을 받는 순서입니다. 기름 부음은 오늘날의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신앙 생활에 승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감람기름 에다 온갖 향료를 가미하여 제작된 특수 제품인 관유 기름이 제사장에게 부어지자 기름이 수염에 흘러 적시고 (시133:2) 마침내 온 몸에 흘러 내렸습니다. 기계에 기름을 치면 기계는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같이 사람이 성령의 능

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게 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의식을 통과한 후에 수송아지를 잡아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것은 아론의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 시키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성도들의 죄도 그리스도께 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3. 매일의 제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아침과 저녁으로 제단에서 양을 바치되 각각 소제와 “자신 대대로 드릴 끊임 없는 번제를 드려” 화제를 삼으라고 하였습니다(38-42)

에 이렇게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43:7)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데서 출발이 되어야 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옛날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방주에서 내려와 한일이 무엇입니까? 집짓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농사짓는 일 아니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나 야외로 놀러가는 일이었겠습니까?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까.

1년 17개월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하였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뻐하며 먹고 즐기고 싶어 했지만 노아는 그런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창 8: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양을 잡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도의 우선 과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 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흠

향 하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본문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성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고 했습니다.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 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교회를 상징 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본문 30절에 “성소에서 섬길 때” 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바로 원어 로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 하박국 2:20절에도 오직 여호와께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 할 지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150:1절에도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 할 지니 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여야 합니다.

본문 32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는 체험을 해야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본문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될 지니라 아담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므로 아담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욕심 장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므로 아담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제 하심으로 “때때로 만나고 말 하리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그의 생명과 은혜 안에 사는 삶과 영광을 드러내며 죄에서 놓여 자유를 얻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더 이상의 아무것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부단히 올려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게 바랍니다.

## 기독교는 가짜 신비주의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계시(성경)에 기반한 신비한 종교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비를 추구하는 신비주의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하면서 개인의 초월적 누리노제 한 체험을 통해 바른 성경관과 계시에서 이탈하여 주관적 체험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교회는 바른 체험과 성경과 다른 신비 체험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기독교 신비주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신비 체험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분별의 도구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성경의 중요성  
신비 체험이 성경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경험이어야 한다(성경론). 개인의 체험이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타락, 구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본적 틀을 허무는 작은 오류(마 2:15)가 되지 말아야 한다. 즉 개인의 주관적 체험이 성경과 어긋나서 자신과 이웃의 신앙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론과 관련하여  
성경적 기독교론을 훼손하는 체험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한 복음적 기독교 교리에 탈선을 일으키는 신비적 체험은 조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론에 대한 도전은 성경에 대한 훼손이요 믿음의 반역이다. 과거 한국에서 천국 체험 간증이 대유행했던 일이 있었다. 어떤 자칭 선교사(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였다)는 천국에 가 보니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머물 댄션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음을 목격했고 자신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댄스를 추었다는 황당한 체험 수기를 책으로 내어 한국 신자들을 현혹한 적이 있다. 은혜는 커녕 심각한 신성 모독의 책이었다. 이런 신비 체험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삼위일체 제 2위 하나님인 그리스도에 대해 왜곡된 믿음을 주입하는 것은 신비주의자들이 자주 범하는 왜곡이다. 이것은 신성모독인 것이다.

◆셋째 교회 역사의 중요성  
어떤 신비 체험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용 가능했던 신비 현상이나 체험이었는가를 검증하는 일은 매우 아주 중요하다(교회사와 교회사). 기독교 역사는 많은 신비적 현상과 개인적 체험들에 대해 그 진위를 평가하여 왔다. 개인의 신비 체험이 이 역사적 평가의 기준들을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불순한 체험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교회의 소위 “금가루 현상”이나 “금이빨 소동”에 대해 개혁신학자 서철원 박사(전 총신대 신대원장)가 기독교 역사

상 그런 신앙적 체험은 없었다고 단언한 것을 주목하라. 완전한 회고 예쁜 이빨이 아닌 하나님께서 치과 의사들이나 하는 그런 불완전한 금이빨을 왜 주시는가? 그런 신앙의 모조품이요 짝퉁 신비 곧 종교적 신비주의에 불과하지 정통 기독교는 전혀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나타난 적이 없던 엉뚱하고 새로운 신비 체험(보기 일명 “토론토 축복”) 등이 나타나면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넷째 성경 기본(핵심) 교리와 내용을 침착하건 안 된다(계 22:18)  
신비 체험이 성경의 틀을 벗어난 침착된 특별 계시적 체험이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계시론). 인류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는 근본적 계시(특별 계시)는 성경 속에서 이미 모두 완성된 것이다. 신비 체험이 이 계시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특별 계시를 들고 나온다면 그것은 성경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다. 새로운 구주, 새로운 성경(물론통, 통일교 교리 등), 새로운 계시의 침착은 결단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낯선 신학 용어는 반드시 신학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경이나 정통 교리보다 신비적 감정이나 체험이 앞서거나 기타 교리적 논쟁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낯선 단어를 분별없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한다. 성경은 은사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들뜬 감정이나 흥분 같은 은사가 다 아니다. 은사는 반드시 성경과 그 열매로 판단 받아야 한다. 또한 신비 체험이 새로운 낯선 단어들을 창출해내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다(벧후 1:20). 교회는 성경과 더불어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신학적 용어에 대해 치열한 논쟁과 토의를 거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교리를 구성하여 왔다. 비록 과학과 기술의 발달 속에서 다양한 단어들이 탄생하였더라도 이것들을 새로운 신학적, 교리적 용어로 활용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마리아의 염색체와 DNA, 예수의 염색체 숫자, 마리아의 월경, 왕의 기도, 신사도, 빈야드 운동, 구도자 위주의 열린 예배(열린 교회와 야남), 제 2 선민론, 제 2 히브리민족 등과 같은 성경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낯선 단어들이 신비주의와 결합할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불순한 폭발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신학 전계에 있어 낯선 용어의 사용은 성령의 사람들 가운데 치열한 신학적 논증 속에서 탈취해서 그 진위를 평가 받은 다음 정금같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영사주 형제 있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이

##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글: 이철호, 그림: 박민호, 대림출판 | 2014년 1월 1일 | 10,000원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미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헤쳐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제,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려, 여전히 쓸 만해.”

하얗고, 오래되고, 물들었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영혼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마스터 이매주

한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번호 626-724-788 **이매주**